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일시 2024. 02. 05 (월) 오후 2시~4시

장소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2024. 02. 05 (월) 오후 2시~4시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개회

14:00 ~ 14:05

행사 소개

14:05 ~ 14:10

개회사

이영범 |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발제

14:10 ~ 14:30

메가시티 한국

천의영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14:30 ~ 14:50

충청권 메가시티

최봉문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4:50 ~ 15:00

휴식 및 장내 정리

자유토론

15:00 ~ 16:00

이영범 |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좌장)

윤성훈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진우 |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이경석 |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

전영훈 | 대전광역시 총괄건축가

김재혁 | 한마음재단 전문위원

성은영 |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

16:00 ~

폐회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Table of Contents

01 메가시티 한국 1

천의영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02 충청권 메가시티 17

최봉문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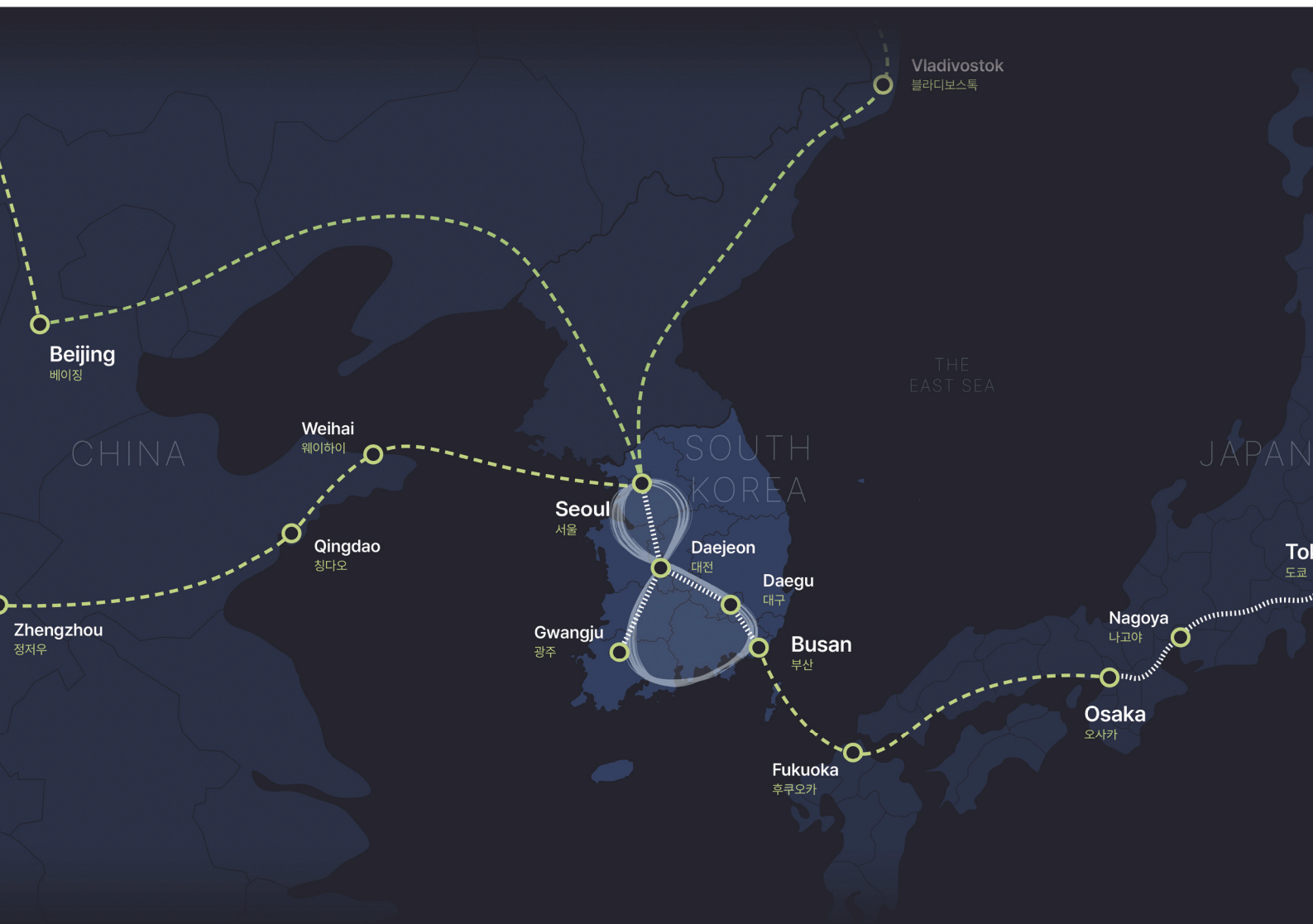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메가시티 한국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메 가 시 티 ’ 한 국

One ‘Megacities’ Nation

[주요 목차]

주요 내용

01. 메가시티의 등장과 국내 현황

1) 글로벌 동향 2) 국내 현황

02. 사례분석 및 국토 재편 전략

1) 해외 사례 분석 2) 국토 재편 전략

03. BOT 도시모형 및 메가시티

1) BOT 도시모형 2) 부산경상권 메가시티 3) 대전충청권 메가시티

결론

천 의 영 / 한 국 건 축 가 협 회

● 주요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

1. 세계 인구증가와 글로벌 메가리전의 부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문제**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2.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 등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3. 해외의 주요 메가리전과 메가시티를 살펴보면 **대도시 중심의 광역 행정의 체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향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는 **국토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
5. 장기적으로 전국도를 주요 압축거점은 물론 주변국과 연결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초광역 메가시티 국가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연구의 정책 제안

1. 압축거점 모형(BOT) 개발

수도권 외 지역에 일자리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호남권), 부산(경남권) 등 권역별 교통 요충지에 업무, 교육, 의료, 문화를 원스톱에 해결할 수 있는 **BOT 도시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2. 압축거점 연결 및 초광역 메가시티 국가

전 국토를 압축거점을 중심으로 항공, 철도, 고속도로의 연결을 강화하고, 2050년 까지 초고속 미래 교통 수단으로 압축거점들을 연결하여 전 국토가 하나의 **초광역 메가시티 국가(OMN, One Megacities' Nation)**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다.

2

Center of the Universe

宇宙의 中心 | 우주의 중심*

S (City), 13C theocentric	-----	church, (World)	XL
M , 15C anthropocentric	-----	man,	L
L , 19C technocentric / mechanical	-----	machine,	M
XL , 20C infocentric / machinic	-----	data,	S

**Three Universal Order : 1) Monetary, 2) Imperial(political), 3) Religious
by 1) Merchants 2) Conquerors 3) Prophets

건축가 아이젠만은 '우주의 중심'이 중세에서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며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계 중심과 정보중심으로 변화해왔다고 이야기한다. 유발 하라리는 세계화 과정에서 돈과, 정치권력, 종교가 공통의 질서 축을 형성해 왔다고 보았으며, 세계는 물리적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점점 작아져 왔고, 반면에 도시는 점점 커져 왔다. 이는 앞으로 세계의 도시가 어떻게 진화해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 포용 공간체제

* Peter Eisenmann, Strong Form, Weak Form, Architecture in Transition, Prestel 1997
** Yuval Harari, Sapiens, Harper & Low 2011

01. 메가리전의 등장과 국내 현황 The Rise of Megaregions & Domestic Situation

01

1) 글로벌 동향: 글로벌 10 메가리전 인덱스 Global Megaregion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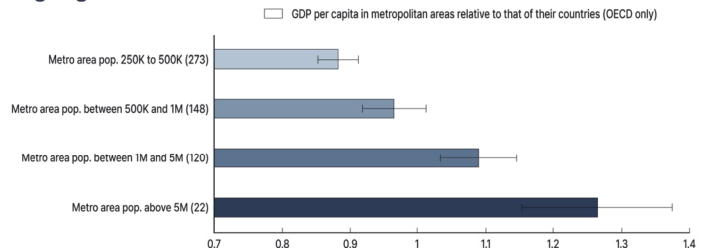
- 글로벌 메가리전을 중 북반구의 상위권의 메가리전들과, 우리나라와 인접한 메가리전들을 중심으로 10개의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그 핵심지표들을 6개 항목의 레이더 차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 지표는 성장연진의 주요 지표인 인구, 교통, 문화, 기업, GDP, 교육 등이며 모두 상대 수치로 전환하고, 합산하여 메가리전 지표값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Seoul-San)은 평균 32.3점으로 각 국가들의 메가리전에 비해 낮은 점수이다.



1) 글로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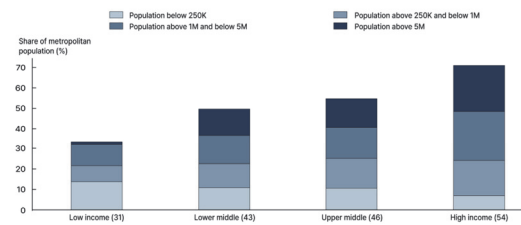
메가시티의 경제적 집중 Economic Concentration in Megaregions

- OECD 조사에 따르면 거대도시와 경제발전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국가일수록 특히 도시화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보스턴-워싱턴(BOS-WAS) 메가리전의 경우 GRDP가 4.4조달러로 독일과 영국경제를 능가하고 있다.
- "40개의 세계 최대 메가리전은 1,000억 달러 이상의 LRP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지구상 거주 가능한 표면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18% 미만의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계 경제 활동의 66%와 기술 및 과학 혁신의 약 85%를 담당하고 있다." (리차드 플로리다, The Rise of Mega-region, p.22)



국가·메가리전 경제규모 통합 순위 Integrated Ranking of Country/Megaregion Economic Size

순위	국가, 메가리전	GDP, LRP (trillion \$)	순위	국가, 메가리전	GDP, LRP (trillion \$)	순위	국가, 메가리전	GDP, LRP (trillion \$)
1	미국 United States	22.94	18	호주 Australia	1.81	35	벨기에 Belgium	0.58
2	중국 China	16.86	19	싱가포르 Singapore	1.6	36	태국 Thailand	0.54
3	일본 Japan	5.10	20	홍콩 Hong Kong	1.6	37	나이지리아 Nigeria	0.51
4	독일 Germany	4.4	21	영국 United Kingdom	1.5	38	오스트리아 Austria	0.48
5	프랑스 France	4.23	22	스페인 Spain	1.44	39	아일랜드 Ireland	0.47
6	대한민국 Korea	3.69	23	브라질 Brazil	1.3	40	이스라엘 Israel	0.45
7	영국 United Kingdom	3.10	24	멕시코 Mexico	1.29	41	노르웨이 Norway	0.44
8	인도 India	2.85	25	캐나다 Canada	1.2	42	슬로베니아 Slovenia	0.43
9	러시아 Russia	2.84	26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1.2	43	아르헨티나 Argentina	0.41
10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2.81	27	인도네시아 Indonesia	1.15	44	필리핀 Philippines	0.40
11	미국 플로리다 Florida	2.2	28	네덜란드 Netherlands	1.08	45	아랍에미리트 UAE	0.40
12	이탈리아 Italy	2.12	29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0.84	46	이집트 Egypt	0.39
13	캐나다 Canada	2.02	30	스위스 Switzerland	0.81	47	덴마크 Denmark	0.39
14	대한민국 Korea	1.82	31	튀르키예 Turkey	0.80	48	말레이시아 Malaysia	0.39
15	중화 타이베이 Taiwan	1.69	32	대만 Taiwan	0.79	49	방글라데시 Bangladesh	0.38
16	러시아 Russia	1.65	33	폴란드 Poland	0.64	50	싱가포르 Singapore	0.37
17	브라질 Brazil	1.64	34	스웨덴 Sweden	0.63	51	홍콩 Hong Kong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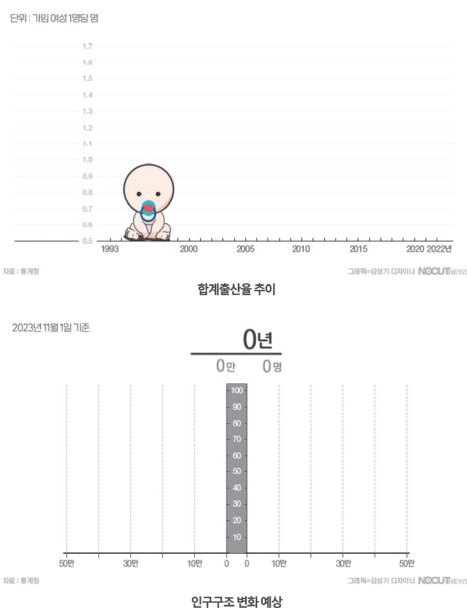


대도시권의 경제 발전과 인구 구조
(OECD Cities in the World, OECD Urban Studie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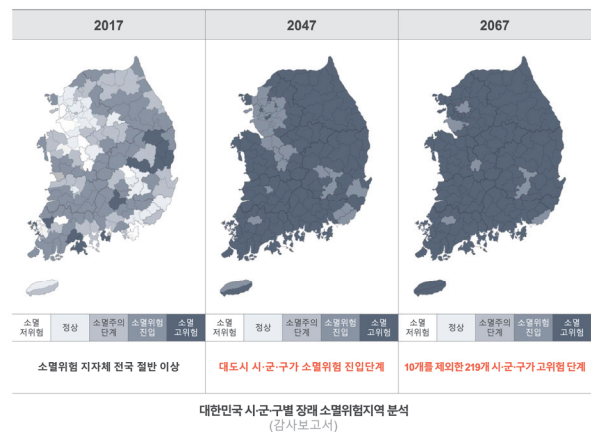
5

2) 국내 현황

대한민국 인구감소 Population Decline in Korea



- 한편, 대한민국은 2022년 US뉴스&월드리포트 발표기준 세계 6위의 국력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꾸준한 인구감소·출산율감소·고령화·양극화 등의 심각한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가올 미래에 국가적 재난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특히 인구감소는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의 소멸을 가속시키고 있다.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20년 기준 이미 소멸위험지역이 106곳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며 이를 막지 못할 경우 머지않아 많은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한민국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 분석
(김석보고서)

6

2) 국내 현황

일자리 격차와 업종간 임금격차

Concentration of High Income Occupations and Wage Gap

■ 지식기반 일자리 약 75%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의 핵심요인 중 하나는 연구, 의료, IT 등 지식산업의 고소득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기흥용인라인, 평택안성라인, 천안아산라인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일자리격차와 소득격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와 기술의 발전을 통한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교육 및 기술 훈련의 확대를 통해 지역별 인력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일자리격차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봉 5천 이상	직업명	평균소득
서울	8,140	88	미비인후과외과	13,934
경기	3,000	51	성형외과외과	13,230
부산	589	15	피부과외과	13,043
충남	428	12	외과외과	12,667
경남	392	10	안과외과	12,280
충북	382	10	산부인과외과	12,123
인천	367	7	정신과외과	11,883
대구	364	4	기업 고위임원	11,219
경북	303	3	비뇨기과외과	11,108
대전	298	3	내과외과	11,073
전남	215	12	소아과외과	10,807
울산	214	7	항공기조종사	10,571
전북	213	5	한의원	10,255
광주	179	10	대학교수장/학장	9,980
강원	171	-	가정의학과외과	9,943
제주	98	-	방사선과외과	9,607
세종	53	-	금융관리자	9,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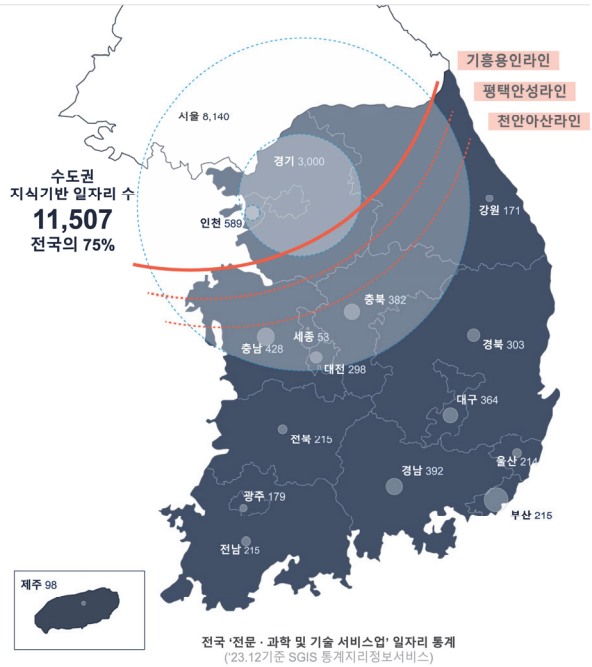
단위: 만원

IT분야
CEO
평균 보수
152,680
·
IT분야
직원
평균 보수
8,129

지식기반 일자리의 전국 고용 분포
('23.12기준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평균소득 높은 직업 순위
(2020 한국고용정보원)

IT분야평균보수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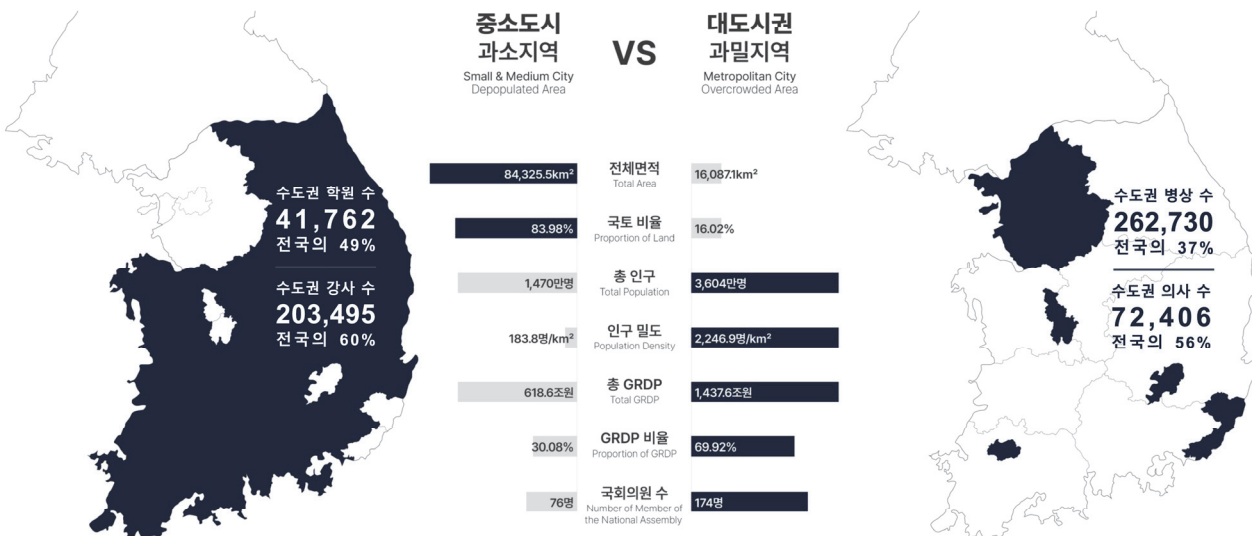


7

2) 국내 현황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 분포현황

The Status Quo of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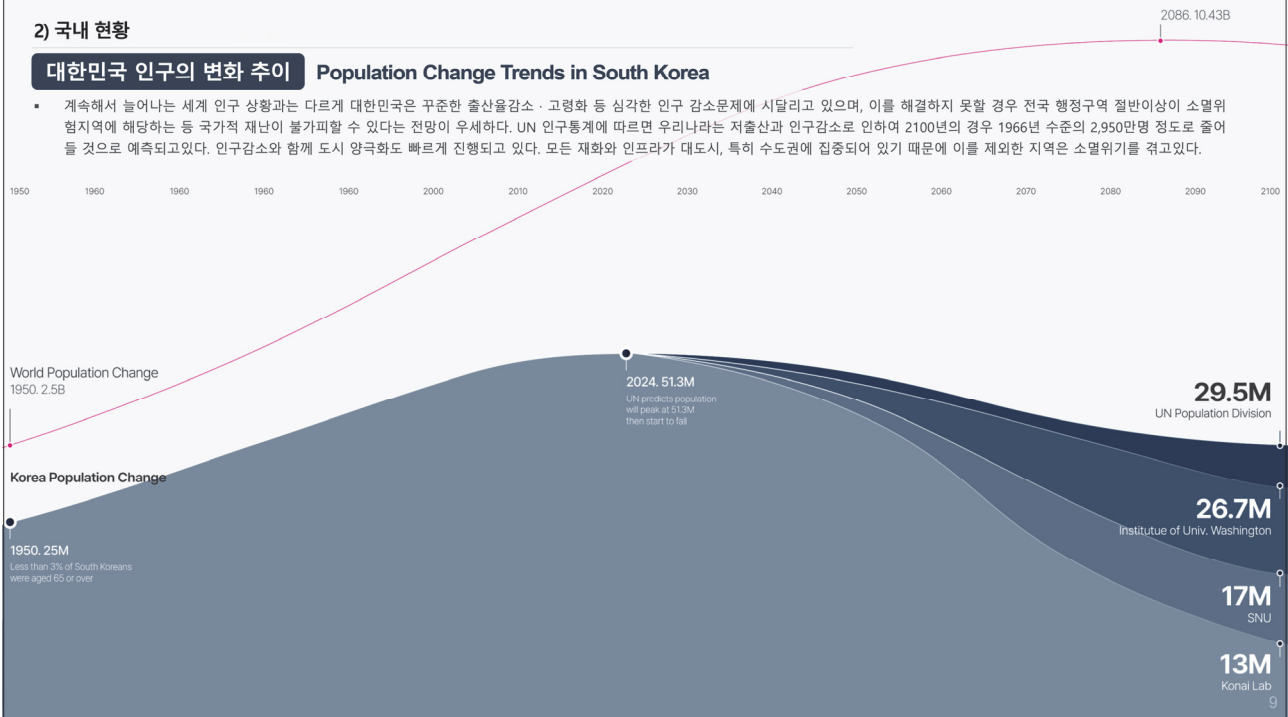


8

2) 국내 현황

대한민국 인구의 변화 추이 Population Change Trends in South Korea

- 계속해서 늘어나는 세계 인구 상황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꾸준한 출산율감소·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 감소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국 행정구역 절반이상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국가적 재난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하여 2100년의 경우 1966년 수준의 2,95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함께 도시 양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모든 재화와 인프리카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지역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02. 해외사례 분석 및 국토재편전략 Case Studies & Restructuring South Korea

1) 해외사례 분석 Par-Am-Mun Mega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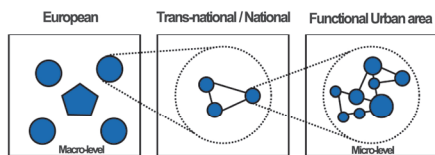
파리-암스테르담-뮌헨 메가리전 형성

1989년 프랑스 지리학자 브루넬의 블루바나나 논의로 부터 유럽 전역에 걸친 국토미래방향 모색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 공간 개발 전망 ESDP에서 유럽의 국제적인 스케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럽을 단핵 글로벌도시 중심에서 다중심체계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 중 하나의 권역이 파리과 암스테르담, 뮌헨 등으로 형성된 Par-Am-Mun 메가리전이다.

유럽의 중심축을 이루는 Par-Am-Mun 메가리전은 약 4,400만명이 거주하며, 경제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로 프랑스 총생산량에 가깝다. 이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총생산량(2019년 기준)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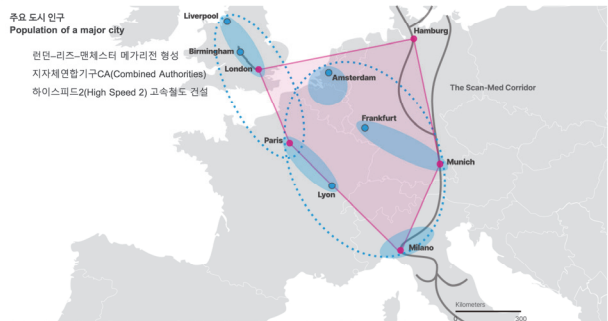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계획

유럽은 이미 광역교통망을 통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밀집된 건축 환경을 갖고 있다. 영국도 산업혁명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철도레일을 고속화 하는 High Speed2와 같은 인프라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럽의 남북을 잇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교통망의 고속화가 진행 중이며, 이미 완공된 스톡홀름과 다리와 함께 알프스 하부의 브레너 베이스 터널과 덴마크의 페마르 벨트 터널 등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추후 이러한 교통망을 통해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들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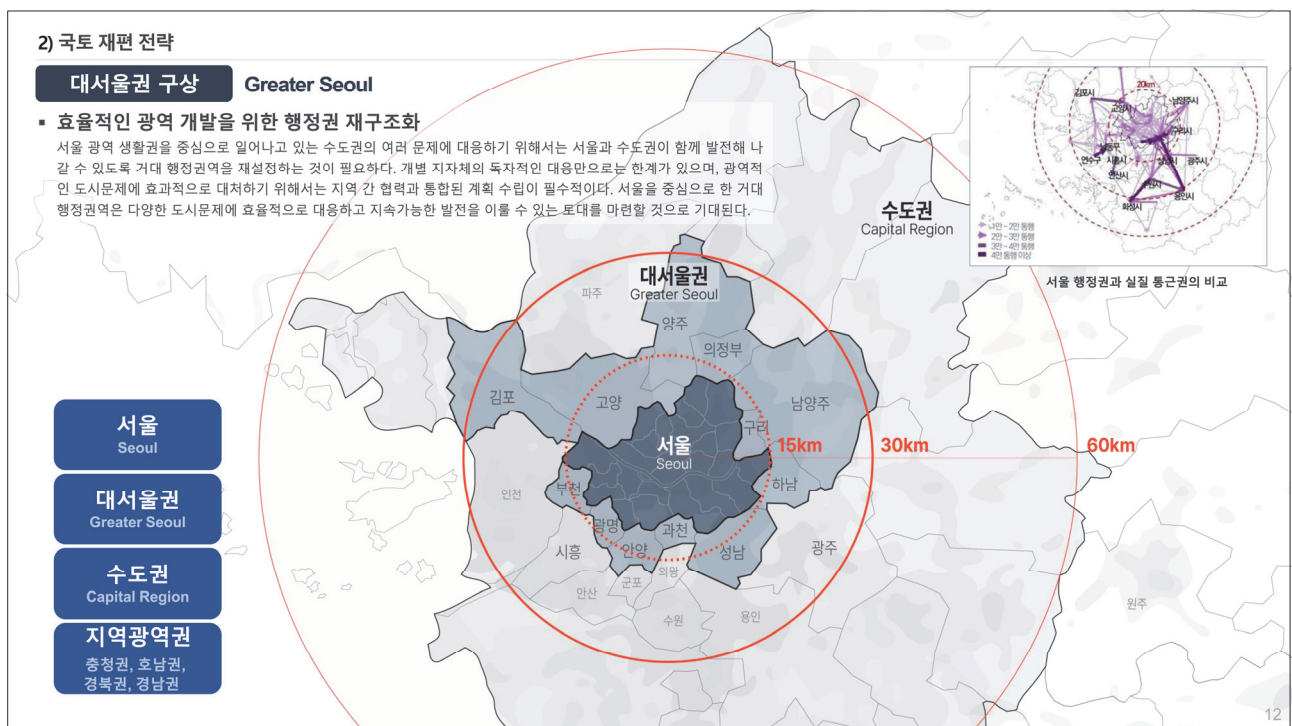
Par-Am-Mun MEGAREGION OF EUROPE

주요 도시 Major City	Paris, Amsterdam, Brussels, Munich
기반 산업 Industry	금융, 관광, 서비스, ICT
인구 Population	4,350만명
경제 규모 GDP	\$ 2.51 trillion
주요 수치 Key Figure	Par-Am-Mun의 메가리전 지표는 53.3이며, 교통과 문화 부분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편타곤 지역: 리버풀 / 런던 / 파리 / 리옹 / 밀라노 - 뮌헨 / 프랑크푸르트 - 암부르크 / 베를린 지역

등장 Appearance	1989년 프랑스 지리학자 브루넬의 블루바나나 논의로 부터 유럽 전역에 걸친 국토미래방향 모색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 공간 개발 전망 ESDP에서 유럽의 국제적인 스케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럽을 단핵 글로벌도시 중심에서 다중심체계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규모 Scale	유럽의 중심축을 이루는 이 거대 메가리전은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셀, 뮌헨에 걸쳐 있다. 약 4,400만명이 거주하며, 경제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로 프랑스 총생산량에 가깝다. 이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총생산량(2019년 기준)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특징 Feature	유럽은 파리-암스테르담-뮌헨의 메가리전과 함께 유럽의 편타곤지역 등 유럽전역의 광역교통망을 통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밀집된 도시전통 환경을 갖고 있다. 또한 유럽의 남북을 잇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교통망의 고속화가 진행 중이며, 이미 완공된 스톡홀름과 다리와 함께 알프스 하부의 브레너 베이스 터널과 덴마크의 페마르 벨트 터널 등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2) 국토 재편 전략

행정 및 성장동력 재편 대안

■ 행정광역화 전략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 거점 도시들도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대서울권 구상과 함께 지역도 주요 도시들을 압축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을 관여화하여 권역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전 영역에 걸친 지자체간 초광역 구조를 한번에 만들 수는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교통중심·경제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 대학·기업·정부·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연계 시너지

압축거점의 핵심은 대학·기업·정부의 산학관 연계이다. 초지능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제조 중심 산업단지보다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산학관의 지식산업연진·트리플 헬릭스의 조성이 필요하다**. 창조적인 트리플 헬릭스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중심대학이므로 과학기술원이 들어서 있는 대전, 광주, 울산, 대구, 포항 등은 압축거점의 잠재력이 있는 도시들이다.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과기원 등의 연계를 통해 미래 핵심 육성 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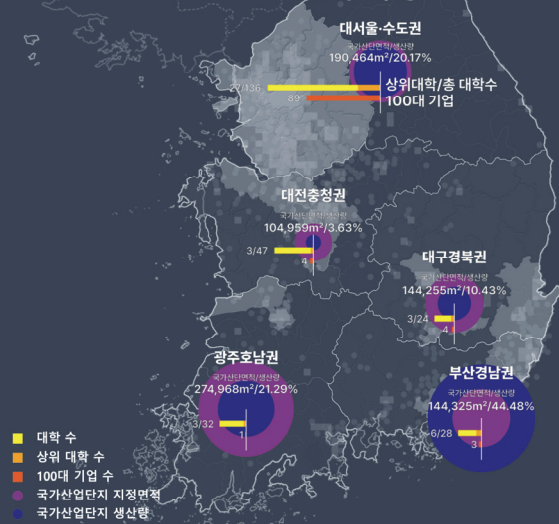
■ 거점 연결 강화 전략

행정광역화 전략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권역별 주요 압축거점에 업무,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를 집적시키는 **웬스틀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초고속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다양한 교통수단이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나의 초광역 메가시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참고 : 두꺼운 트리플 헬릭스: 연구중심대학과 지역혁신체계의 역동적 전환, 김경명

대한민국 산업·기업·교육 종합

Korea Infrastructure
(Industry, Economy & University)

13

2) 국토 재편 전략

5대 압축거점 중심 BOT 개발전략

- 국토의 교통 요충지에 BOT압축 거점을 계획하여 국가 교통 흐름의 효율을 높인다. 앞서 살펴본 듯이 서울과 부산이 통근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3,000만의 서울권 메가리전 + α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DOT 도시모형은 광역교통부터 라스트 마일까지의 모든 연결을 심리스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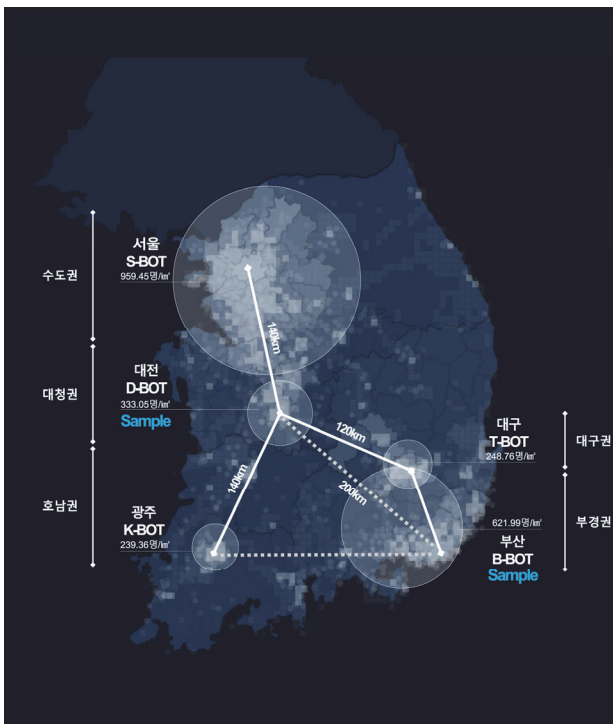
Sample 부산경상권

- 대한민국 서울권 메가리전의 한 축인 부산을 선정하여 BOT의 샘플도시모형을 계획해 본다. B-BOT 도시모형은 광주와 창원에서 이어지는 남부벨트라인과 대구권과 부산권을 연결하는 대구-부산 순환 교통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계획된 교통중심 선형 고밀압축 도시모형이다. 복합환승 충전허브를 거점으로 도시의 밀도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만든다.

Sample 대전충청권

- 수도권에서부터 이어져 호남과 영남으로 나뉘는 지점인 대전을 선정하여 BOT의 샘플도시모형을 계획해 본다. D-BOT 도시모형은 호남과 영남의 철도 분기점과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일치하는 지점에 계획된 교통중심 선형 고밀압축 도시모형이다. 복합환승충전허브를 거점으로 도시의 밀도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만든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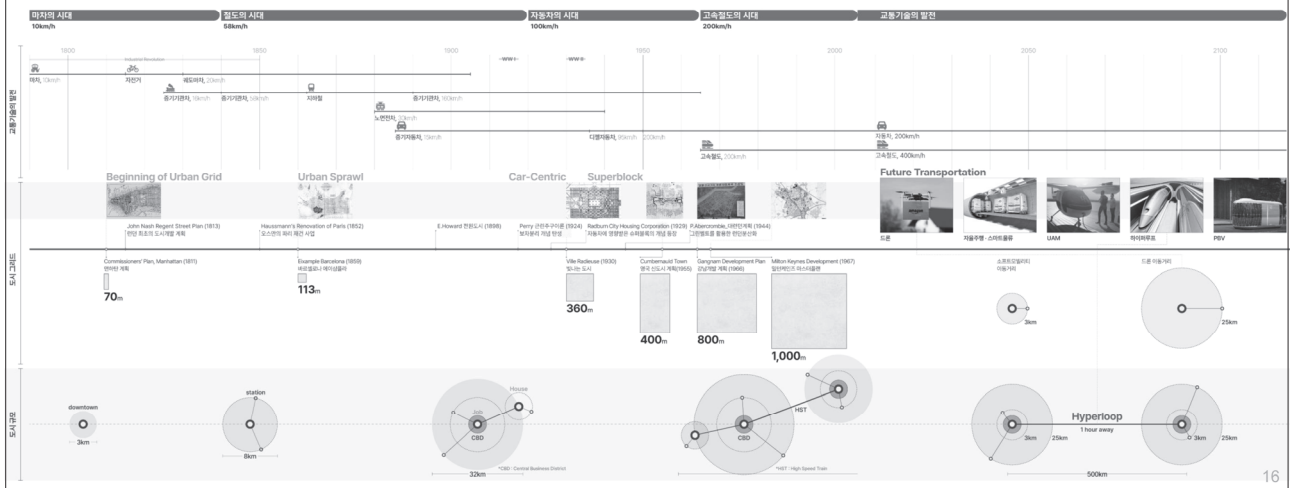
03. BOT 도시모형 및 메가시티

03

1) BOT 도시모형: 교통과 생활권 Transportation and Living Zone

■ 교통과 생활권의 변화

- 전세계적으로 교통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정주환경과 도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진화해왔다. 20C 이후 자동차가 보편화되며 건물에 주차장이 의무화되기 시작한 것처럼, 새로운 교통기술의 발전은 건축과 도시의 체계와 형태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 근래에는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자동차, 도로기술 등 교통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 새로운 교통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도시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미래도시를 혁신적으로 바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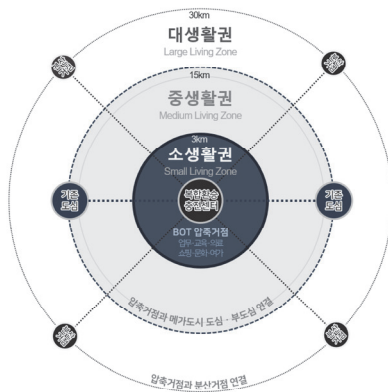


1) BOT 도시모형

교통중심 압축거점 생활권 체계

System of New Living Zone Based on BOT Compact Center

- 실질 생활권을 근간으로 하는 압축거점을 중심으로, 교통 중심·경제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압축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통과 압축거점 간의 연계를 위한 고속광역교통망의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하이퍼루프, UAM 등 미래 교통수단을 적용하면 전 국토가 출퇴근권이 되어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BOT 압축거점 소·중·대 생활권 계획

초광역생활권

- 메가리전

KTX

광역생활권

- 메가시티

GTX

대생활권

- 광역시

분산거점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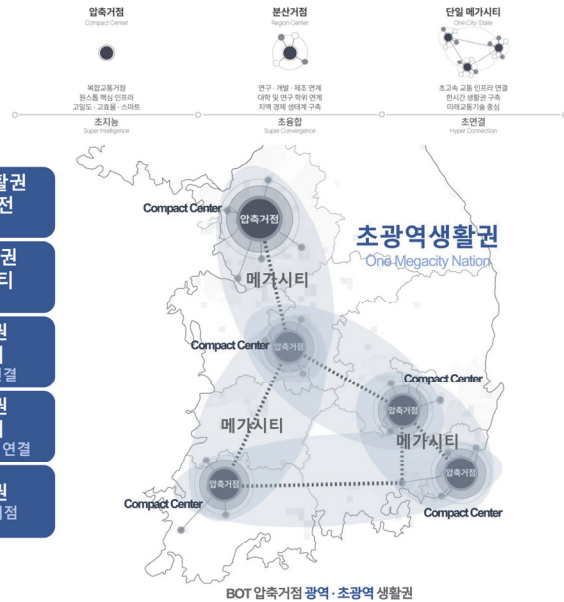
중생활권

- 일반시

도심·부도심 연결

소생활권

BOT 압축거점



BOT 압축거점 광역·초광역 생활권

17

1) BOT 도시모형

BOT 압축거점 다이어그램

BOT Concept Diagram of Compact Center

- 효율적인 교통환경과 경제환경은 안정된 정주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한 육아환경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작동할 수 있다. 출산을 한 경우 모든 시간과 생활권의 중심이 육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주환경, 육아, 교육환경이 부족한 경우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새로운 압축거점은 효율적인 교통연결과 함께 육아, 교육, 업무,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스톱 생활환경과 지역첨차 기반이적 공유를 기본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8

2) 부산경상권 메가시티

남해안벨트 교통망 강화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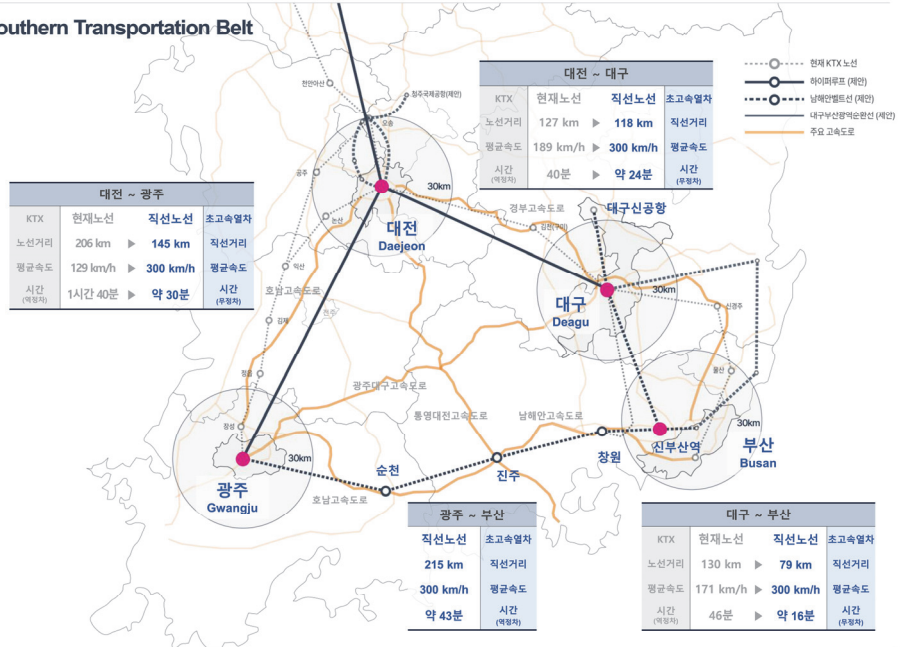
Southern Transportation Belt

■ 남부권 강화를 위한 신설 노선 계획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전 이하의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강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광주를 출발하여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횡라인을 신설함으로써 남부권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광주를 서남부의 중심 도시로 끌어올리고, 창원과 부산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와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남부벨트 교통망 강화 전략은 국토 공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역 광역화 발전 전략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남부 지역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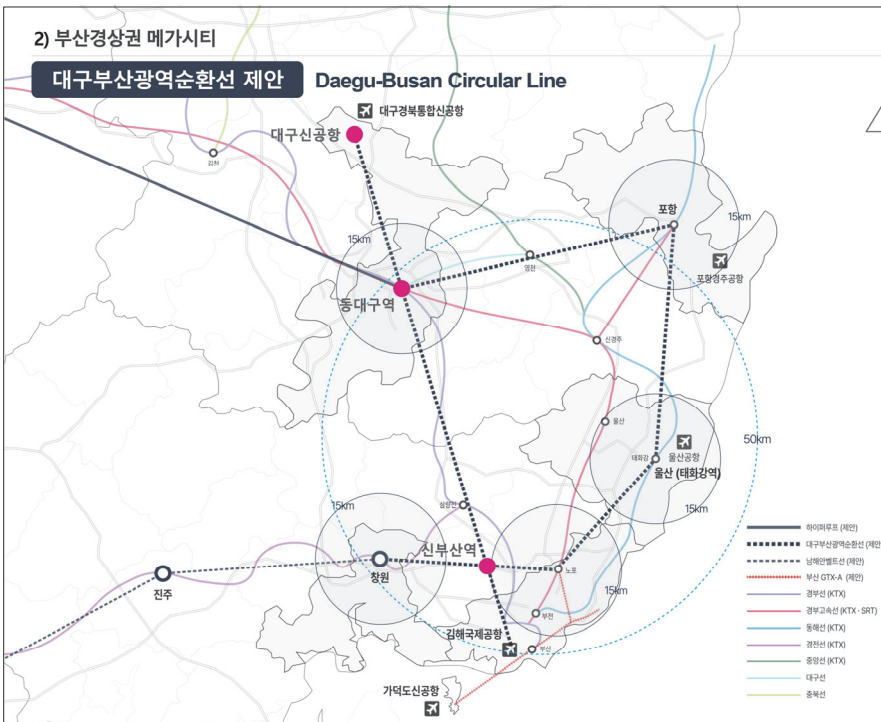


19

2) 부산경상권 메가시티

대구부산광역순환선 제안

Daegu-Busan Circular Line



■ 대구-부산 광역순환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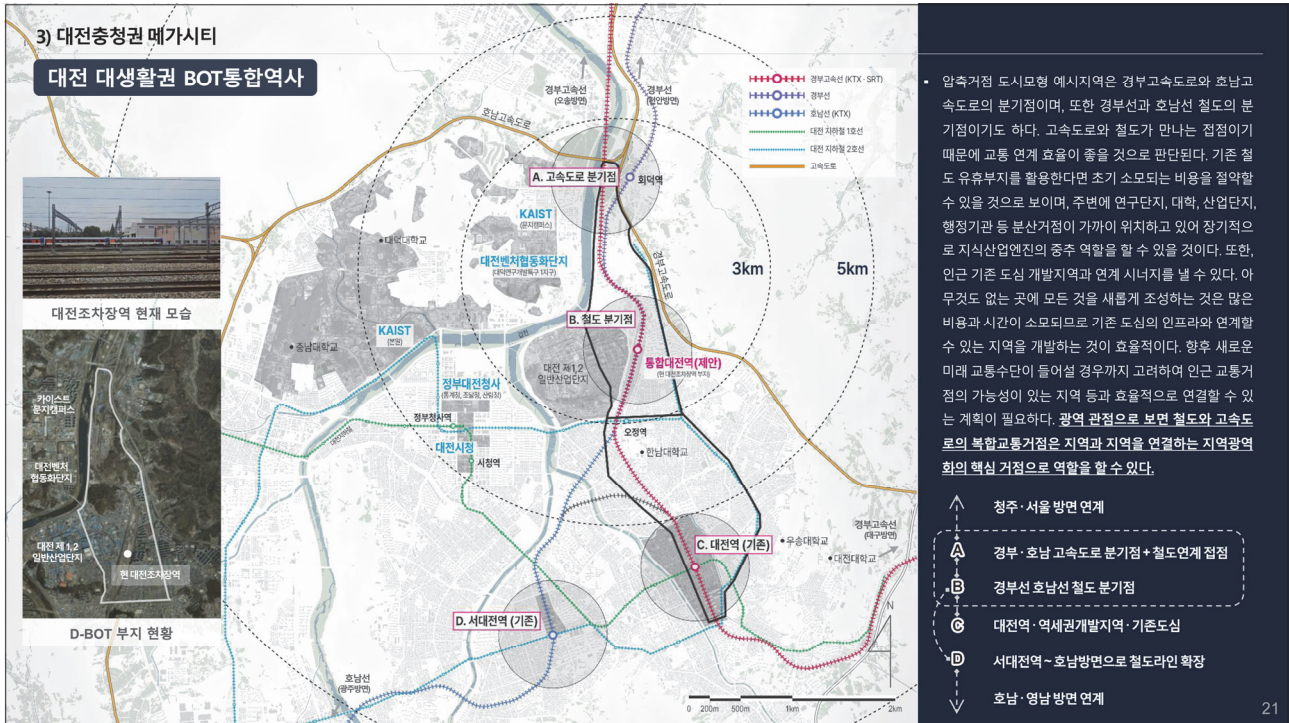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창원, 울산, 포항을 연결하는 순환 동선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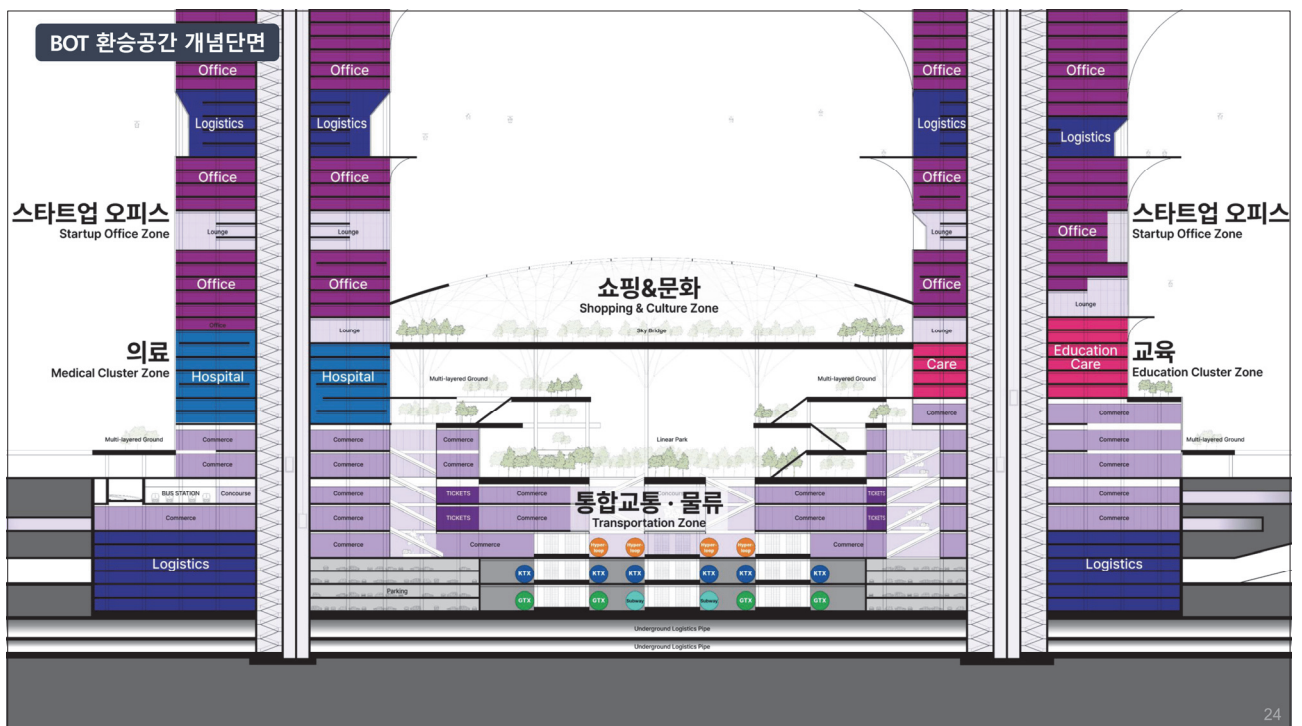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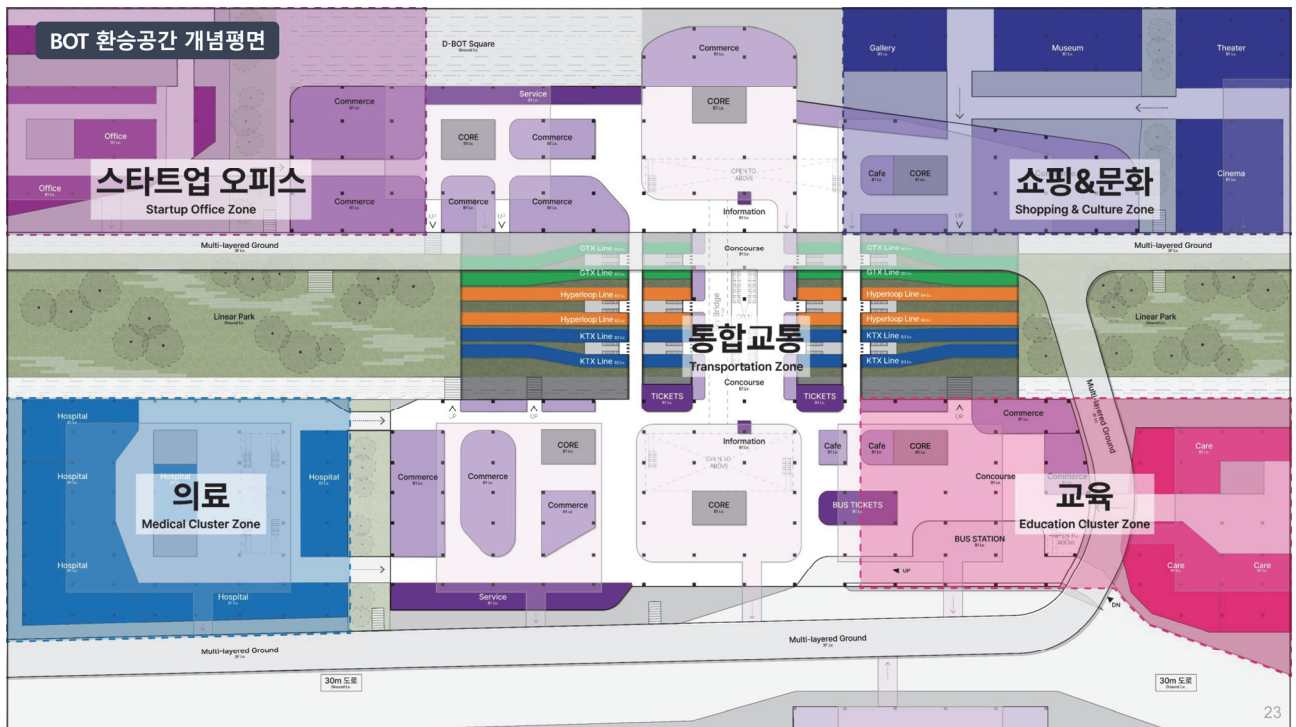
■ 가능성

남부벨트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선은 지역 간 교통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인프라를 강화하며, 더 나은 교통 흐름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동선은 남부벨트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들을 연결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화된 다양한 산업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간 경제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관광산업권을 형성할 수 있다.

20





인공지능 활용 BOT 압축거점 이미지(AI Aided Design Study)



25

● 결론 및 제언

- OMN(One Megacities' Nation)은 "2100 대한민국 글로벌 초광역 메가시티 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2100년 도시건축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의 거대혁신목적(MTP, Massive Transformative Purpose)의 연구이다. 인구감소·저출산율·고령화·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초광역 메가시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를 재편하고, 새로운 미래모습을 그려보고는 것이 중요하다.

2023

2100



One Megacities' Nation “ 메 가 시 티 국 가 ” 한 국

1.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전국토를 5~6개 메가시티의 원스탑 압축거점으로 연결
2.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플랫폼 체제 준비
3. 5년 정부를 초월한 장기 국토공간 계획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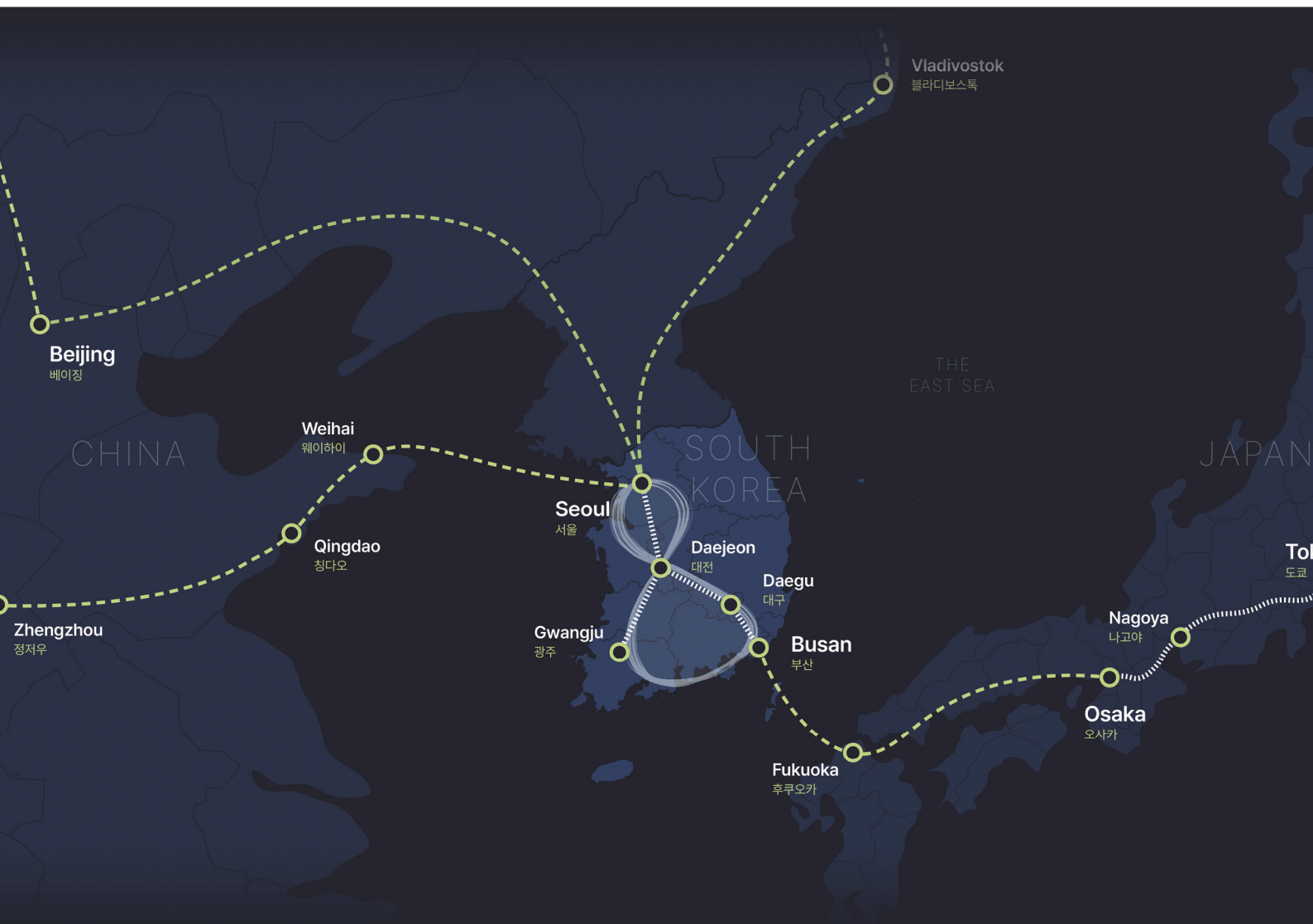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충청권 메가시티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메가시티 이해와 제언

- 충청권 메가시티 -

2024년 2월 5일

최 봉 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
- III. 충청권 메가시티(초광역생활경제권)
- IV. 메가시티 논의 현황과 평가
- V.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배경과 개념구조

■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배경

- 균형발전은 역대정부들이 공통으로 채택하였던 정책이었지만,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 간 인구비율이 역전되고, 지역격차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2022년 최대 인구규모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1위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구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전국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삶의 다양성 등을 추구하는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하면서,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메가시티 또는 초광역권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메가시티 논의의 배경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

1. 들어가는 말

■ 메가시티(초광역권) 사례 유형

■ 초광역 사례

■ 연합형 초광역

-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특정의 기능을 공동처리하는 것으로 해당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적 권역이 확대되는 것
-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및 충청권 등의 초광역 구상

■ 통합형 초광역

- 기존의 하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
- 통합된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공간적 권역이 확대되는 것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 독립형 초광역

- 공간적 확대가 아닌 권한적 확대를 추구
-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권한의 특례를 부여하여 발전동력을 구축하는 것
-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구분	연합형 초광역	통합형 초광역	독립형 초광역
정책적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도 메가시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소권 메가시티 •전북·경원·제주
현실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착수 (2020년 3월 10일)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공동연구 착수 (2021년 3월 19일) •대구·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특별자치법정지 설치 연구(2021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식 선언(2020년 1월) •광주·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 행정통합제언 (2020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2008년)

자료출처 : 금창호, 2022, "초광역 협력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토 2022년 3월호, p.34,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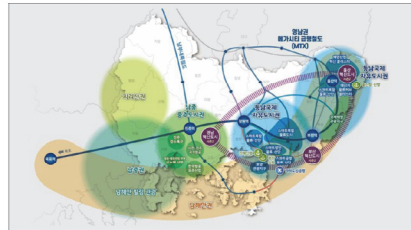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4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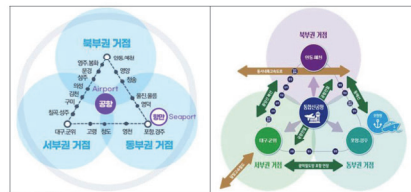
■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 사례

그림 4-1 | 동남권 초광역권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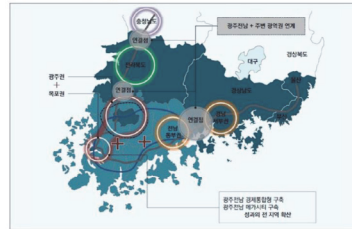
자료: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2021).

그림 4-2 | 대구-경북 3대 권역 + 2포트 네트워크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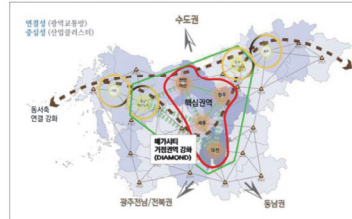
자료: 최재원(2021).

그림 4-3 | 광주-전남 초광역권 공간구성



자료: 최우영(2022).

그림 4-4 | 충청권 메가시티(MCR) 다핵연동형 다핵거점 네트워크 구성도



자료: 대전세종연구원 충청연구원 충남연구원(2021.11.4).

자료출처 : 박경현 외, 202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5

1. 들어가는 말

■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배경과 개념구조

■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현재

- 이전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작성되어 지방에서 실천된 정책이었던 것과 달리, 메가시티 논의는 지방에서 시작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발전한 경우임
- 2021년 지방자치법과 국토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지위와 수단을 갖추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추진에 어려움 직면
- 행정구역의 변화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메가시티의 논의와 별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최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치권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관점의 메가시티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논의과정에 머물고 있음
-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부산-울산-경남 (이하 부울경)**은 지자체간 복잡한 이해관계 및 민선 지자체장 교체등으로 지지부진해졌고, 5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대구-경북 통합논의**도 현재는 멈춰진 상태이며, 현재는 **충청권 메가시티**만 지자체장들의 추진의지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함께 얹혀있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중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6

2.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

■ 메가시티(초광역권)의 학술적 이해

■ 메가시티란?

- 메가시티(Mega-City) : 인구규모 천만 이상의 도시 혹은 도시권 (즉, 매우 큰 도시 혹은 도시권)
- 우리나라의 메가시티 논의 : 수도권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가진 지방 대도시권

■ 메가시티논의 유형

- 광역(경제)권 : (예; 5+2 광역경제권)
- 행정구역 통합 : 부울경, 대구경북
- 행정구역 확장 : 서울특별시로 김포시 편입 논의
- 새로운 특별행정체계 출범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논의 유형

- 메가시티(초광역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행정체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Mega City-Region : Hall & Pain (2006)
메가시티에 지역의 개념을 포함, 거대도시권화 과정
(예) 영국의 8대 도시권(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Mega City : Castells (1996)
핵심도시 중심의 기능연계, 글로벌 경제의 결절기능
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 도시권
1일 생활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의 경제규모 등

Global City-Region : Scott (1999)
세계적인 대도시와 배후지역이 일체화, 초국적형태

Megaregion : Florida (2008)
세계적 경쟁체계 속에서 대량의 부와 혁신창출 지역
(예) 미국 10대 메가리전 (Northern California, Great Lakes, Northeast east 등)

Megalopolis : Jean Gottman (1961)
인구 100만명 이상 거대 도시들 간 상호 기능연담화로
형성되는 대도시권 (신지역주의+네트워크도시권)

New Megalopolis
한 도시권(지역)의 성장 ▶ 동반성장 or 사회적 비용 1
상호보완 또는 연계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료출처 :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7

2.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

■ 메가시티(초광역권)의 등장

■ 초광역권 개념의 등장

- 초광역권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
- 초광역권에 대한 관심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인구성장과 외연적 확산 등을 통해 인근지역과 섞이면서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 도시-경제권역으로 병합되는 현상이 관찰되면서부터 시작됨
-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에 따른 핵심도시들의 역량이 증시되면서 세계도시(world city, global city) 개념이 등장(Friedmann, 1986; Sassen, 1991)
- 이들 세계도시가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광역적 공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메가시티리전 (mega city region) 등의 광역권 공간개념이 급부상하였다(Scott, 2001).
- 고트만(Gottmann)이 1961년 미국 보스턴~워싱턴 회랑지역(Bos-Wash)을 메갈로폴리스로 명명한 이후 초광역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확대됨(Gottmann, 1961)
- 유럽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내 특정 지역들이 도시-지역 스케일로 확장, 재구조화는 현상에 주목하여 런던, 파리 등 세계도시 뿐 아니라 란스타드(Randstad)와 라인-루르(Rhine-Ruhr) 등의 지역까지 포괄하는 다중심성을 강조하는 다중심성 메가시티리전(polycentric mega city region) 개념을 발전시켰다(Hall and Pain, 2006).

자료출처 : 박경현, 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의의와 과제", NABIS 뉴스레터 2021-24호 커버그토리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8

2.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

■ 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

■ 초광역권 개념

- 초광역권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은 **중심성과 연계구조**
-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결합하여, 생활권이나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된 공간권역을 형성하여 글로벌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권역내에서는 중심도시와 인접지역간 기능적 연계를 통해 동질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초광역권은 공간을 획정하기 어렵고 행정구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초광역권을 **경계가 없는 도시(edgeless city)**(Lang, 2003), 새로운 경제·사회적 스케일로 기능하는 공간 집약체라 부르는 이유다. (OECD, 2019:2)
- **초광역권의 경쟁력은 일정 인구규모를 갖는 행정구역의 연합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스케일의 연결성에 있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료출처 : 박경현, 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의의와 과제", NABIS 뉴스레터 2021-24호 커버그토리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9

2.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

■ 초기 광역권 논의 (역대 국토종합계획과 광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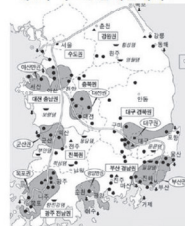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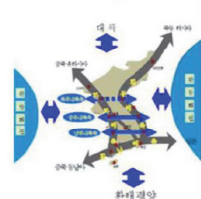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개방형 통합국토축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2006)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2011)



자료출처 : 박경현, 2020, "초광역 연계협력의 진단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10

2.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연혁

■ 초기 광역권 논의 (역대 국토종합계획과 광역권)

구분	제1차 국토개발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개발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계획 (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11-2020)
비전 및 목표	• 국토이동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 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책 유도 • 개발가능성의 한국적 확대 •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 공간 형성 • 분산적 자원집약적 국토이동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비전: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비전: 역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비전: 글로벌 녹색국토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공간 전략	• 성장거점개발 방식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 관역별 개발방식 - 4대권 8중권 17 소권	• 분산형 거점개발방식 • 지역생활권 방식 - 28개 지역생활권 (생활권별 성장거점 포함)	• 다핵개발방식 • 지역경제권 개발방식 - 4개 지역경제권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중부권)	• 개방형 통합국토촉 - 연안국토촉, 동서내륙촉 • 광역개발방식 - 10대 광역개발권 (산단입지, 대도시, 연단도시형)	• 국토균형발전의 국정 과제다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5+2광역경제권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립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광대 도시의 성장역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 산단입지대 조성 및 산업구조고도화 • 종합적 고속 교통망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 확대 • 국토계획 집행역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 개방형 통합국토촉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집약입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추진 • 개방형 국토촉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가형 국토촉(7+1) 구조	• 광역경제권 형성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 5+2광역경제권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참고 작성

자료출처: 차미숙, 2021, "새로운 국가공간 구상의 제안", 대전세종포럼 2021년 봄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안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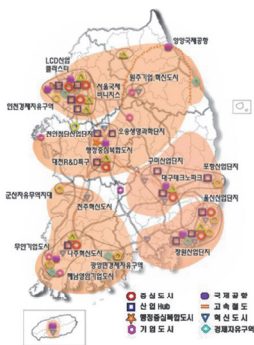
11

2.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연혁

■ 역대 정부의 (초)광역권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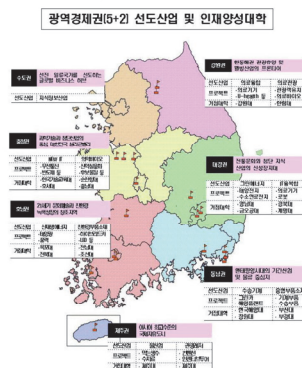
■ 2007년 참여정부 초광역권 구상

- 2007년 7월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참여정부 국가균형발
전위원회가 '초광역경제권(5+2)구상' 공식발표



■ 2008년 광역경제권(5+2), 초광역개발권 구상

-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초생활권(163개), 광
역경제권(5+2), 초광역개발권(4+@)을 지역발전정책
공간단위로 설정



자료출처: 강현수, 2020, "균형발전과 광역권: 필요성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안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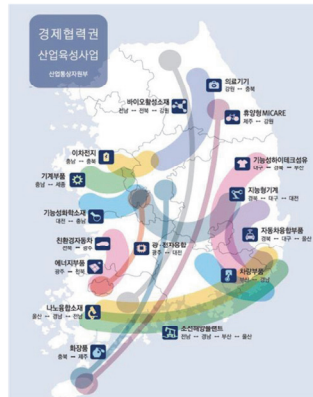
12

2.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연혁

■ 역대 정부의 (초)광역권 논의

■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 협력권

- 2014년 1월 균형바라전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6개 협력 산업을 선정



자료출처 : 강현수, 2020, "균형발전과 광역권 : 필요성과 과제",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2021년 문재인 정부 지역주도 초광역 협력



자료: 정부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2021. 10.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13

2.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의 연혁

■ 역대 정부의 (초)광역권 논의

■ 역대정부 광역권 구상 비교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배경	-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간 발전격차	- 지역 글로벌 경쟁력 취약	- 지역주민의 낮은 삶의 질 만족도(행복도)	- 저성장·저고용·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목표	-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지방의 격차 완화	- 지역경쟁력 강화 - 성장·균형	- 생활제감형 지역발전 - 성장·균형	-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주요 정책	- 지역혁신체계 구축 - 공공기관 지방이전 -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 지역산업 육성	- 초광역개발권 구상 - 광역경제권 육성 - 기초생활권 발전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도시재생 뉴딜, 혁신도시 시즌 2 - 도심융합특구 - 초광역협력 시원
정책 수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4-2008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5개년계획 (2009-2013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4-2018년)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19-2023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초광역권 전략	- 4대 초광역경제권 - 5+2 초광역경제권구상 - 허황식 - 지역 및 국가경쟁력 극대화	- 5+2 광역경제권 - 초광역개발권 - 허황식 - 대외 경쟁력 강화	- 지역행복생활권 - 경제협력권 - 상항식 - 국민만족도 제고	- 초광역협력(부울경 특별연합) - 허황식 - 지역 주도의 자립성장기반 마련
성과·한계	-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 초광역 국토전략 미흡	- 행정구역 넘어서는 광역적 공간전략 시행 - 초광역 사업목표와 달리 지역현안사업으로 구성	- 국민만족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 광역경제권 추진수단 폐지	

자료: 이상대,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동향과 향후 방향」, 『국토연구』, 제100권, 국토연구원, 2019; 민성희 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19; 박경현, 「초광역권 의의와 국토정책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22.3.10. 제구성

자료출처 : 김예성 외, 2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14

2.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 연혁

■ 역대 정부의 (초)광역권 정책 평가

■ 역대정부 (초)광역권 정책진단

■ 공간전략의 부재

-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전략적 공간설정이 미흡
- 광역권,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실질적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함
- 광역권 발전계획이 지역적 특성과 연계되지 못하고, 소위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여 중복투자 등 발생
- 어디에 - 무엇을 -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 미흡

■ 사업범위의 인위적 설정과 유연성 부족

- 광역경제권의 공간범위가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 경제권과 불일치
- 경쟁을 통한 국책사업 선정방식을 도입하여 행정구역 내 지자체 간 갈등으로 새로운 지역이지주의 조장
- 행정구역 내 개발주의 패러다임이 우선시되어 지역 역량의 증진에 소홀

■ 하향식 집행구조

-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
- 광역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부족
- 지역의 책임성 약화와 지역간 나눠먹기식 사업추진
-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대표성과 연계성이 낮음

자료출처 : 박경현, 2020, "초광역 연계협력의 진단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15

2. 메가시티(초광역권) 논의 연혁

■ 지역주도 초광역권 추진의의와 과제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실현
 - ①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 ②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 ③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 ④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 제적 대응
 - ⑤ 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 의료 혁신으로 지역 균형발전 해법 제시
 - ⑥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자료출처 : 지방시대위원회, 2023,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보도자료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16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개념

-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2020년 11월 20일 제29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여 분권형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합의를 작성
- 충청권의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형성 차원에서 지역현안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

초국적, 글로벌경제, 혁신창출지역,
거대 도시권, 네트워크 도시권, 역동적 도시화,
토지이용혁명(도시+농촌), 다양한 요소들의 공간연계
연계협력, 상호보완, 기능연담, 지역간 근린관계 강화

- ❖ 광역권: 분업화 된 협력 연결망(생활권/경제권) 구조 형성
- ❖ 네트워크: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체계 구축
- ❖ 거버넌스: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 행정기능 강화



자료출처: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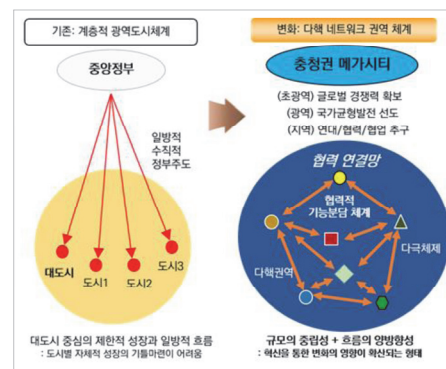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추진배경

- 정책적 여건변화: 글로벌 메가시티의 증가와 국토종합계획의 변화

- 전세계적으로 500만 이상의 대도시가 2018년 81개에서 2030년 209개로 확대전망 (UN, 2018)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19,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계획 차원에서 국토공간을 다핵·다극 체제로 전환을 제안
- 지역의 관점에서 수도권 중심의 계층적 광역도시체계에 대응하는 다핵중심의 메가시티 논의 활발
- 광역차원의 기능적 분담체계에 기초한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권역체계가 강조되고 있음



자료: 충청권 상생협력기반단(2021),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발표자료(2021.7.23)

자료출처: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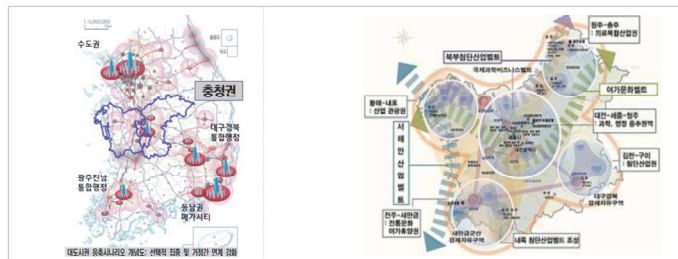
18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Ⅰ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추진배경 (계속)

- 광역차원의 충청권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
 - 광역인프라(광역철도망, 도로망, 물류유통망, 관문공항, 관문항만 등)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지역주도의 광역차원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됨



자료: (左) 이용우 외(2016),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용역시나리오(광역권에 선택적 집중과 거점과 연계가 강화되는 시나리오에 해당) 상의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
(右) 대전광역시(2012),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기본구상 - 기본구상도

자료출처 : 염인선,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19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Ⅰ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추진배경 (계속)

- 지역차원의 단일 생활경제권 형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으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기존의 충청권 행정협의회(2015~)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협의체(광역행정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합의

- ❖ 2020.11.20. 제29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1995년~현재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 합의문 채택
- ❖ 2021. 1.29. 충청권 상생협력 공동연구용역 추진회의
- 4개 시도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기본구상(안) 논의
: 시도별 기획관실/균형발전담당관실 실무자, 시도별 연구원 등 참여
- ❖ 2021. 3.15. 제30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개최
- 2021년도 충청권 상생협력 연구용역 ‘충청권 메가시티’ 착수 결정
- 2021년 포괄적 아젠다 설정, 향후 매년 연구용역 실시
- ❖ 2021. 4. 5. 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착수보고
- 4개 시도별/분야별 추진 연구지원팀과 실무지원팀으로 구성
- ❖ 2021. 5.11. 국가규명발전 및 광역권 정책 세미나 참석
-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동남권 등 광역권 육성에 관한 논의 중



자료: 충청권 상생협력기(충청2021),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자료(2021.7.23)

자료출처 : 염인선,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20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현황 및 여건분석

■ 충청권 지자체 단체장들 간 합의사항

	제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21.3.15) / 메가시티 관련 시도지사 의견종합	요 약
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포괄적' 협력과제 및 사업을 결정 (agenda setting, 협안 다듬기) - 차후: '분야별' 세부적 연구 가능 "매년 한안 모색" 	<p>강제된 중심성 분업성 산업구조</p> <p>광역 철도망 & 국제공항/물류유통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 국제과학비즈니스, 4차 산업혁명</p> <p>다핵거점 공간구조 & 네트워킹 도시연립형 ▶ 중핵도시 육성</p> <p>네트워킹 거버넌스 & 분야별 관리적 운영 ▶ 광역통합</p>
세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시티 연구용역 "매년" 수행 필요 - 내년 연구 과제 및 예산 미리 준비 ○ 단계별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할안 과제 중심/ agenda setting - 중기: 광역철도 운영(광역철도청 등), 환경 등 분야별 협력 - 장기: 행정통합 	<p>성향한 연결성 다핵거점 도시 네트워크</p> <p>문화권 정체성 지역성 기반 문화형성</p>
충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초, 메가시티 '방향' 답아 '별표' 필요 - 4월말 광역철도 공청회 (6월 확정) 반영 필요 → 4.7.(서울시장 전) 건 착수보고 개최 ○ 단계별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광역철도망의 4차 계획 반영 - 2단계: 광역경제생활권(환경, 문화, 경제 등) 분야별 '관리청' - 3단계: 행정통합 	<p>광역행정 거버넌스 생활권/경제권 통합형 서비스</p>
충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적극 협조 요청 *제30회 충청권 행정협의회(‘21.3.15. 공동안전 처리) - 경부고속철도와 사설선 연결 ○ 단계별 추진 방향: 충북 안이 동의 	<p>문화 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문화융성 기반 구축 ■ 충청권 관광자원 연계활용 <p>광역 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생활서비스 권역 확대 ■ 충청권 생태환경 통합관리

자료출처 :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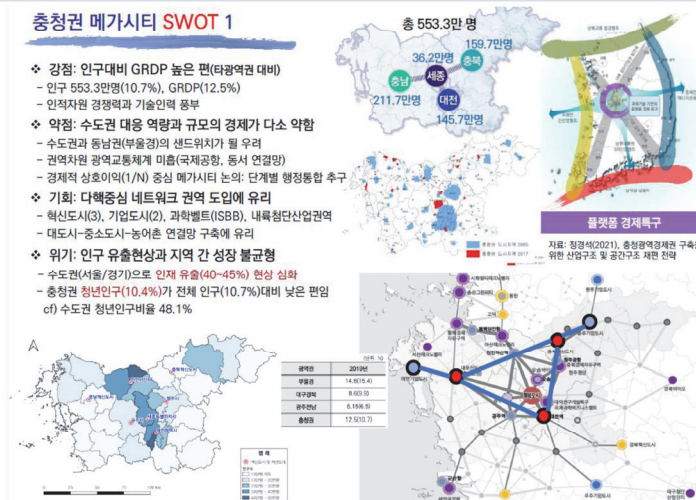
21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현황 및 여건분석

충청권 메가시티 SWOT 1

- ❖ **강점**: 인구내비 GRDP 높은 편(광역경제대내)
 - 인구 553.3만명(10.7%), GRDP(12.5%)
 - 인적자원 경제력과 기술인력 우위
- ❖ **약점**: 수도권 대우 불균형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함
 - 수도권과 동남권(대우)의 선드러움이 될 우려
 - 권역외의 광역경제권체 미흡(대중교통, 통사 연결망)
 - 경제적 의존도(1/N) 중대(1/N비는 노는)의 광역 행정통합 추구
- ❖ **기회**: 다핵중심적 거점도시로 권역 도입에 유망
 - 혁신도시(3), 기업도시(2), 과학밸트(SSB), 내륙첨단산업지구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연결망 구축에 유리
- ❖ **위기**: 인구 유출현상과 지역 간 발전 불균형
 - 수도권(서울)경성권으로 지역 유출(40~45%) 현상 심화
 - 충청권 청년인구(10.4%)가 전체 인구의(10.7%)보다 낮은 편임
 - 구 수도권 전역인구 비중 48.1%



자료출처 : 염인선, 2022.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세충지회 전문가 워크숍 발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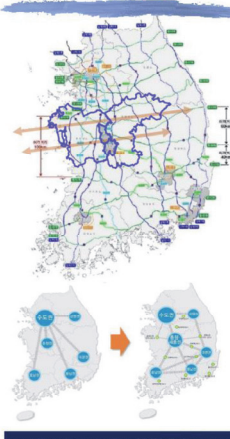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22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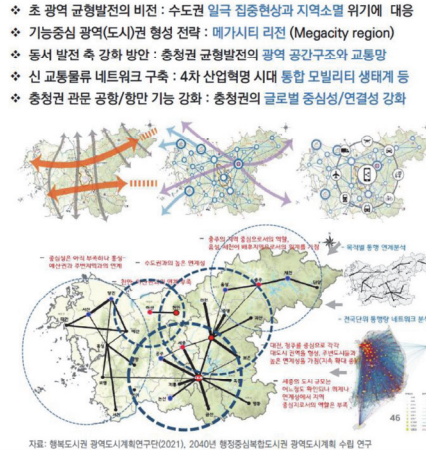
■ 현황 및 여건분석

충청권 메가시티 SWOT 2



일대광역-축(축)국도공간구조 - 다국도광역(수출입)국도공간구조
자료: 오윤준 외(2021),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안 및 정책과제

[충청권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



자료: 행정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연구단(2021),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자료출처 : 엄인선, 2022,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세총지회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23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현황 및 여건분석

Ⅰ SWOT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방법

- 초광역 균형발전 모델 정립 :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요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광역권의 중심성을 확보해야 함
 - 거점도시 주변의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권의 기존 남북축(경부축)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동서축을 더욱 강하게 연결하는 광역차원의 공간구조와 교통망 구축이 중요함
- 기능 중심 광역권 형성을 위한 메가시티 리전(Mega City-Region, MCR) 구축
 - '국가혁신의 수도권' 기능을 더욱 강하게 부여하여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기존의 도시권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을 아우르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상호 지역간 기능분담 체계안에서 광역권 또는 거대도시권역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행정수도(세종) 기능과 더불어 과학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환경수도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능 중심의 신수도권 형성에 주력
- 지역 간 규모의 중립성과 흐름의 양방향성에 기초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생활권) 충청권의 나핵거점 네트워크를 강하게 형성하여 내내·내외적인 확장성과 상호지역간 협력적 기능분담 체계속에서 광역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함
 - (경제권) 충청권의 세계적인 지식기반 혁신클러스터 및 미래 신산업벨트 구축·운영을 위한 글로벌 인적자원 확보와 신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네트워크) 충청권의 관문공항과 관문항만을 확보하고, 원활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충청권이 성장거점으로서의 경쟁력과 초광역차원의 네트워크 효과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출처 : 엄인선,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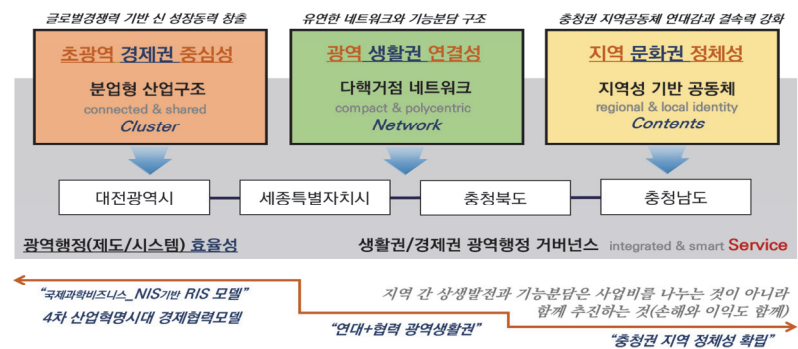
24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주요내용

Ⅰ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기본방향

- ❖방향 ① **초광역 경제권 중심성 강화** ▶ 글로벌 경쟁력 창출 + 상호 경제적 번영에 기여 +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방향 ② **광역 생활권 연결성 강화** ▶ 기능중심 연결 체계 + 주민체감형 생활권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 구축
- ❖방향 ③ **지역 문화권 정체성 강화** ▶ 장소적 매력도 강화 + 사회문화적 동질감 확보 +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료출처 :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25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주요내용

Ⅰ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비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

- 1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2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3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4 초광역 인프라 구축



자료출처 :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26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주요내용

Ⅰ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목표와 전략

목표 Ⅲ. 산업경제.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충청권 광역 신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메가시티

- 전략 1. 충청권 연결의 경제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 전략 2.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R&D플랫폼 구축
- 전략 3. 혁신자원 연계 경제기반 확충과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목표 Ⅱ.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충청권 전체를 유연하고
강력하게 연결하는
메가시티

- 전략 1.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 전략 2.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전략 3. 충청권 스마트리전 구축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구축

목표 Ⅰ. 사회문화.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충청민들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강화와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메가시티

- 전략 1.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실행력 강화
- 전략 2. 충청권 문화관광 국제화 및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 전략 3.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자료출처 :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27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주요내용

Ⅰ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권역설정 기준(안)

❖ 광역중심 생활권 [거점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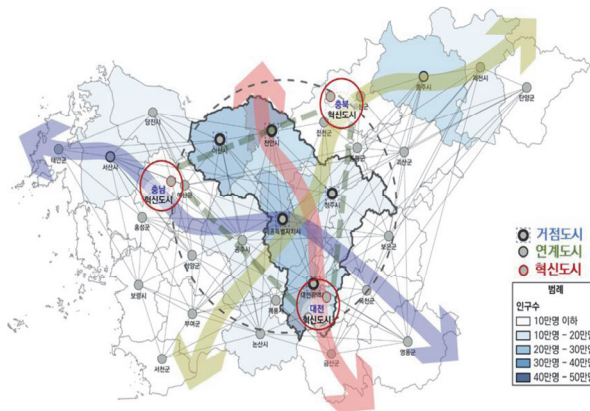
- 대전/세종 생활권 (180.4만)
- 천안/아산 생활권 (95.9만)
- 청주 생활권 (83.8만)

❖ 균형발전 거점 [혁신 도시]

- 충남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18.1만)
- 충북 혁신도시 (진천/음성 2.5만)
- 대전 혁신도시

❖ 지역연계 생활권 [연계 도시]

- 충주 생활권 (21.2만)/충주기업도시 등
- 서산 생활권 (17.4만)/태안기업도시 등



자료출처 :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28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주요내용

■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전략과 사업



자료출처 : 염인선,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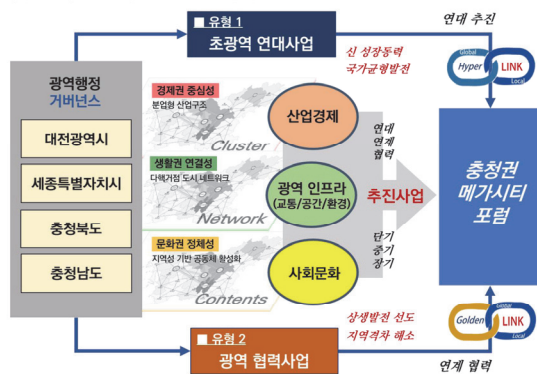
29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주요내용

■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추진체계

(생활권) 다핵 공간구조 구축 : 서비스 중심 광역권 연결
(경제권) 분업형 산업구조 형성 : 클러스터 중심성 강화



자료출처 : 염인선,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Who	사업별 추진주체 (협력범위와 정도)
When	사업별 추진시기 (우선순위와 중요도)
What	유형별 추진사업 (연계효과/중복성)
Where	권역차원 사업추진 (네트워크 효과)
Why	세부 실행계획 수립 (목적/필요성 재검토)
How to	행· 재정 지원체계 (광역 사무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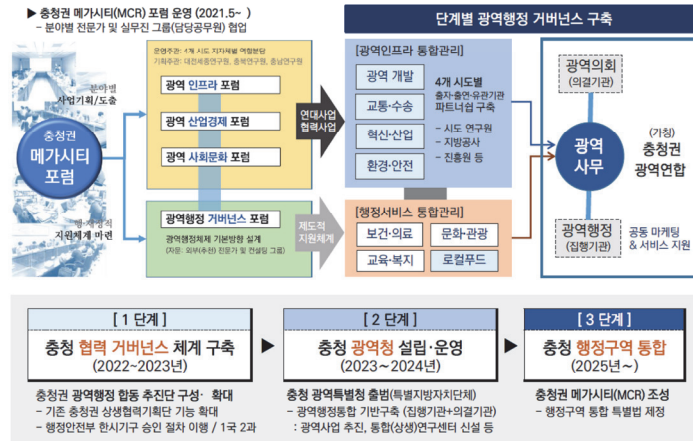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0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주요내용

■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추진 로드맵



자료출처 : 염인섭, 2021,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대전세종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1

3. 충청권 메가시티의 비전과 전략

■ 메가시티(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제언

■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MCR) 성공을 위한 조건

- 충청 메가시티 3대 발전전략
 - 광역경제생활권의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을 추구
 - 장소적 매력도(Quality of Place) 제고
 - 도시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 경제적 번영 추구
 - 충청권 산업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형 혁신산업을 육성
 - 충청권은 수도권과 연계하면서 자체적인 자원들을 활용하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용이한 조건활용
 - 대전의 NIS(국가혁신시스템)과 충청권이 가지는 RIS(지역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수도권과 차별되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역할 담당가능
- 장소적 매력도 제고
 -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압축적 공간구조를 구현하고,
 - 시대적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광역과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인프라 구축
- 장소매력도 제고
 - 충청권광역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통합관리
 - 충청권 광역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충청권 내 보건의료자원 공동활용
 - 문화충청권 문화관광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광역관광 추진조직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정책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자료출처 : 오용준, 2021,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방향과 전략", 열린충남 Vol. 94, 2021년 가을호, 충남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2

4. 메가시티 논의 현황과 평가

■ 메가시티(초광역권) 조성의 효과와 한계

■ 메가시티(초광역권)에 대한 기대

- 메가시티(초광역권) 전략에 대한 기대효과
 - 도시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키워 집약적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대도시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발전 전략
 - 메가시티가 잘 조성되어 집적경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가 활발하게 발생할 경우, 인구증가분을 상회하는 지수적 경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됨
- 산업구조 변화와 국제적 경쟁체제 강화
 - 최근 지식산업 전환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글로벌대기업 중심의 승자독식체제가 강화되고 있음
 - 도시 내 집적에 따른 이익이 과거에 비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견 증가
-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가
 - 시민들의 문화욕구 등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충분한 배후 수요가 호가된다면, 풍부한 투자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다움을 느낄 수 있는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와 요구 증대
- 메가시티는 국제적인 추세
 - 많은 국가들이 메가시티 전략을 도시나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간주하여 메가시티의 정책과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반적인 메가시티의 기준인 인구 1,000만명으로 보면 1950년대 2개, 1975년 3개, 2000년 16개, 2009년 21개 그리고 2020년 43개로 꾸준히 증대하고 있음

자료출처 : 정진도 외, 2023,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장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163호, 국회입법조사처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3

4. 메가시티 논의 현황과 평가

■ 메가시티(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제언

■ 메가시티(초광역권) 정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 공간전략의 부재
 - 지금까지 초광역 정책은 공간보다 기업 및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음
 - 기업성장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
 - 중심도시와 인접지역 간 연계를 통한 동질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전략이 부재하였음
-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의 관심 부족
 -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향식(Top-down) 정책추진으로 주작용 발생
 - 초광역 연계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지자체는 협력해야 하는 동기와 인센티브가 부족
- 사업범위의 인위적인 설정과 유연성 부족
 - 중앙정부가 광역경제권 공간범위를 행정구역단위로 설정하여 광역경제권이 지역경제권과 일치하지 않음
- 예산배분의 문제
 -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위 '돈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지자체간 유사한 사업계획들이 제안되고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성과중심의 단기사업 추진
 - 지역안배 차원의 대규모 투자사업, 단기 또는 성과중심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실질적인 지역발전 기여도 낮음
 - 초광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제도가 없어, 정권의 집권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조급성 등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공간전략의 성공을 저해함

자료출처 : 박경현, 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의의와 과제", NABIS 뉴스레터 2021-24호 커버스토리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4

4. 메가시티 논의 현황과 평가

■ 메가시티 논점 정리

■ 메가시티(초광역권)을 둘러싼 쟁점

-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 간 가치충돌
 - 광역시와 광역도가 지향하는 초광역권 방향이 서로 달라 추진의 혼란과 갈등
 - 대도시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일부지역 소외론 등 권역내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될 우려(부울경 사례)
 - 농어촌에 대한 발전방안을 담은 균형발전 전략 필요
- 초광역권 공간구조에 대한 합의 부재
 - 초광역권 정책의 기본방향이 집중(Compact)과 연계(Network)를 통한 광역권형성이므로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연결성 강화 필요
 - 권역설정에 따라 초광역권에 포함될 지자체들을 선정함과 동시에 협력지자체간의 성과공유체계 마련 필요
-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조의 미정립
 - 초광역권 구성 지자체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고,
 - 자신이 속한 지자체나 지역의 이익보다 초광역권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버넌스 운영 필요
- 명확하지 않은 초광역권 자원 조성 주체
 - 특별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건비, 공동사업 발굴, 발굴된 사업의 추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명시 필요
 - 2021년 10월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에서 재정지원 제도를 명시했지만 현실화 필요

자료출처 : 박경현 외, 202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5

4. 메가시티 논의 현황과 평가

■ 메가시티(초광역권) 조성의 효과와 한계

■ 메가시티(초광역권) 전략의 한계

- 메가시티(초광역권) 조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메가시티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반대급부의 비용발생(교통 및 환경문제, 지가상승, 주민갈등 등)
 - 메가시티 내부에서도 도시확장 과정에서 공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주변부 확장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퇴 등과 같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은 심화될 수 있음
- 메가시티 조성 효과의 차등성
 -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메가시티와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조성효과가 구분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 **수도권 메가시티**는 집적의 이익에 의한 지수적인 효과를 이미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현행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각종 혼잡효과나 도시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함
 - **비수도권 메가시티**는 특정거점에 집중해서 살만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구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재차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충분한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한계
 - 전국적인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그 인구감소의 대부분이 경쟁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흡입에 대응한 인구유출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메가시티가 조성되어야 함
 -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직면한 현실은 부족한 기반시설과 인구유출을 억제하거나 주변으로 부터 흡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나 지원으로 수도권의 메가시티와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수도권의 메가시티만 추진된다면, 국토의 불균형의 문제는 더욱 심각화될 수 있음

자료출처 : 정진도 외, 2023,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장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163호, 국회입법조사처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6

5. 맺는 말

■ 메가시티(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제언

■ (초)광역권 정책성공을 위한 조건

-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설정
- 대도시권의 중추거점 기능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간경계 소멸, 시공간 압축은 수도권의 집중화 추세를 강화시킬 위험 높음
 -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대도시권의 중추 거점을 우선 강화할 필요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도시와 주변지역과 연계 강화
- 광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 산업 및 지역정책에서 광역, 지역의 역할을 강화
 - 연계지역간 협의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전략공간 계획을 수립
 - 1개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 파급효과가 여러 지역에 미치는 이슈 등은 광역차원의 연계협력 필수
- 정부차원에서 초광역 연계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하고 지역이 합의한 초광역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추진
 -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기능 확대 : 지역간 연계사업, 부처간 연계사업의 경우 사업의 확정 및 예산 집행을 위해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초광역 협력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을 신설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기반 확보

자료출처 : 박경현, 2020, “초광역 연계협력의 진단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7

5. 맺는 말

■ 메가시티(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제언

■ 메가시티(초광역권) 성공전략

- 합리적인 초광역협력사무의 선정
 -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를 선별하고, 국가사무 중 지역특성에 맞는 초광역 사무 선정
 - 국가사무 위임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분권논의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세부절차 마련필요
-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추진기구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표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 특별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 설계가 요구됨
- 초광역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 특별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특별자치단체간 조달방안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활용 필요
- 초광역권 육성계획의 역할 및 위상정립
 - 2022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초광역권 정의가 규정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수립의 법적기반이 마련됐지만 두 계획간의 관계 및 차이 불분명하여 추가 규정필요
 - 양 계획과 국토계획 중 도중합계획 등과의 조화 관계와 위상정립을 통한 정합성 확보 필요
- 초광역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요구
 - 초광역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수

자료출처 : 김예성 외, 2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과역협력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8

5. 맺는 말

■ 메가시티(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제언

■ 메가시티(초광역권) 성공전략 (계속)

- 초광역권 계획과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정합성 확보 필요
 -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발전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5차국토종합계획은 그 이전에 수립되어 초광역권 개념의 반영이 필요함
- 생활권 - 경제권 - (초)광역계획/광역교통 - 행정권 통합으로 접근
 - 메가시티 논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권을 통합에서 시작하여, 지역기반의 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가진 기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에서 시작 필요 (행정권 통합에서 시작되는 논의는 부정적)
 - 광역공간계획과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내부공간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외부지역들과의 교류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 필요 (기존의 행정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
- 선 육성 - 후 균형 정책
 - 오랫동안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그 효과를 국가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의 수혜를 받아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진중한 수도권은 지방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유지 필요
 - 지방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계획이나 규제들을 완화시키거나 무력화 시키는 방안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메가시티가 새로운 지역 이기주의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필요
 - 메가시티(초광역권)의 경계는 행정구역의 경계로 지역산업 및 지역간 협력의 공간단위와 일치하지 못함
 - 메가시티 권역내 지역과 경쟁하거나, 권역외 지역과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메가시티의 권역이 새로운 폐쇄적 공간단위가 아닌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필요

메가시티(초광역권)의 이해와 제언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39



감사합니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